



8.26 금속경기2차총파업 계양전기 일방적 미국 진출 중단 요구



손범국지부장
"서른가모두의 고용을 지키자"



서명관계양전기지회장
"경영책임 묻고 소중한 일터 지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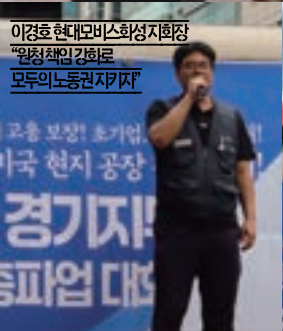


윤종재한국맥기지지회장
"조타수가 잘못 잡은 방향
노동자는 엔진 못 돌려"

경기지부는 8월 26일(수) 14시 30분 서울의 계양전기 본사 앞에서 2차 총파업 대회를 열고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초기업 원청교섭 쟁취. 계양전기 일방적 미국 현지공장 진출 반대**를 외쳤다. 계양전기지회 전조합원 포함 700여 명이 모였다.

계양전기지회는 87년 설립해 40년을 이어온 노동조합으로 지금의 회사와 노사관계를 만들어오는 데 많은 투쟁과 희생이 있었다. 최근 수년간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조합이 최대한 협력해왔으나, 올해 사측은 지난 오랜 노사관계의 책임을 방기하고, 노사 공유와 협의 없이 비밀리에 미국 현지공장 설립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양전기지회는 본사 앞 투쟁을 펼쳐왔고 지부 조합원이 함께 파업으로 마음을 모았다. 경기지부는 사용자의 무능하고 일방적인 경영이 수십년 소중하게 가꿔온 일터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경호현대모비스화성지회장
"원청책임강화로
모두의노동권 지키자"



남원주현대그린푸드경기지회장
"함께 싸워 노동조합 지키자"



코리아에프티지회생생



노래로 물들다



이태현금속노동부위원장
"맞선경기투쟁 금속노동조합에"



계양전기지회전조합원 "금속노동1번계양전기우리가 지켜왔고우리가 지킨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2차 총파업 결의문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7월 15일 희성축매 앞에서 200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신규지회 투쟁 승리와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1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오늘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공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계양전기 자본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2차 총파업 투쟁을 이곳 계양전기 본사 앞에서 진행한다.

자본이 주도하는 산업전환과 일방적 경영 추진에 노동자들의 고용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사회적 생산의 주역인 우리 노동자들에게 자본은 지속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일방적 경영 추진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등 원청 자본은 지난 몇 십 년간 자회사, 하도급 구조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착취하더니, 노조법 2·3조가 개정되고 노동조합이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라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기대어 법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고용 불안과 원청 교섭을 무시하는 자본을 통제하기는커녕 그들의 행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계양전기 자본은 조합과 사전 협의도 없이 미국공장진출을 밀실에서 계획하다 발각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회사는 투자 규모와 추진 일정, 생산 물량 및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노동조합에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해야 하는가?
회사는 중요한 경영 판단에 노동자는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가?
경영 실패의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새로운 투자의 위험까지 노동자가 떠안아야 하는가?

우리는 회사의 생산을 책임지는 주체이며, 회사의 미래를 함께 결정할 당사자이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추진하는 일방통행식 경영 방침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회사가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과 합리적인 투자, 조합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가 필수적인 시기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모든 사업장의 2026년 임단협 투쟁 승리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원청교섭을 쟁취하고, 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는 계양전기 자본에 맞서 1만 2천 조합원의 흔들림 없는 투쟁으로 승리하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모든 사업장의 2026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경기지부가 하나 되어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모든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초기업·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조합과 합의 없는 계양전기의 일방적 미국공장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자랑스러운 금속노조 푸른 깃발 아래 단결과 투쟁, 연대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고 확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6년 8월 26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2차 총파업 참가자 일동

